

2026년 청년조합원과 함께하는 5·18 정신계승 광주항쟁 역사기행

계엄군의 폭거에 맞서 죽음으로 항거한
노동자·민중의 민주주의와 해방을 향한 길!

- 일시 : 2026년 5월 15일(금) ~ 16일(토)
- 장소 : 5·18 민중항쟁 역사의 현장 / 민족민주열사묘역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저 전두환 살인 집단에게 도청을 내준다면
 우리는 죽어 간 명령들과 역사 앞에 죄인이 됩니다.
 우리가 비록 저들의 총탄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굳게 뭉쳐 싸워야 합니다

//

- 1980년 5월 27일 전남도청을 사수하다 계엄군의 총탄에 죽어간
 도청시민학생투쟁위원회 대변인 故 윤상원 열사의 발언 中



5.18

(노래: 정태춘)

작사: 백기완, 문승현, 정태춘

작곡: 김정률, 문승현, 정태춘

가사

(새 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어디에도 붉은 꽃을 심지마라
거리에도, 산비탈에도 너희 집 마당가에도

살아남은 자들의 가슴엔 아직도
칸나보다 봉숭아보다 더욱 붉은 저 꽃들

어디에도 붉은 꽃을 심지마라
그 꽃들 베어진 날에 아 빛나던 별들

송정리 기지촌 너머 스러지던 햇살에
떠오르는 헬리콥터 날개 노을도 찢고 붉게...

무엇을 보았니 아들이 나는 깃발 없는 진압군을 보았소
무엇을 들었니 딸들이 나는 탱크들의 행진 소리 들었소

아 우리들의 오월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날 장군들의 금빛 훈장은 하나도 회수되지 않았네

어디에도 붉은 꽃을 심지마라
소년들의 무덤 앞에 그 훈장을 묻기 전까지 오...

무엇을 보았니 아들이 나는 옥상 위의 저격수들을 보았소
무엇을 들었니 딸들이 나는 난사하는 기관총 소리 들었소

어디에도 붉은 꽃을 심지마라
여기 망월도 언덕배기의 노여움으로 말하네

잊지마라 잊지마 꽃잎 같은 주검과 훈장
누이들의 무덤 앞에 그 훈장을 묻기 전까지 오...

무엇을 보았니 아들이 나는 태극기 아래 시신들을 보았소
무엇을 들었니 딸들이 나는 절규하는 통곡 소리 들었소

잊지마라, 잊지마, 꽃잎 같은 주검과 훈장
소년들의 무덤 앞에 그 훈장을 묻기 전까지 오....

동영상

[518기념재단 기념음반]

정태춘 - 5.18



[2019년 열린음악회]

정태춘, 우주현 - 5.18



금속노조가

김호철 글,곡

노 동 자 의 길 해 방 의 길 에
짓 누 클 수 록 더 욱 강 하 게

1. Gm C F Dm Gm⁷ A



당 당한 역사의 합성이 되어 우리는 간다

2. Gm C A Dm B $\flat$ A Dm

피로써 뭉쳐진 강철의 대오 아 금속노조여

Dm C Gm C F A
 나 가 자 성 벽 을 깨 고 죽 음 의 사 선 을 넘 어
 말 하 라 외 처 불 러 민 중 의 선 봉 에 서 서

노 동 자 - 해 방의 나 기 필 고 쟁 취 하 리 라
 녀 나 없 이 평 등한 나 기 필 고 쟁 취 하 리 라

전국금속노동조합 평등수칙

2022년 8월 9일, 21차 중앙집행위원회 채택
2023년 10월 10일, 60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정

[전문]

우리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 함께 싸우는 동지들이다. 동지들 간에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차별과 소외 없는 노동해방 세상을 우리 안에서 실천하기 위한 성찰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평등수칙을 통해 모든 노동자가 인권을 침해받지 않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평온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토론하고 실천한다.

[동지들 사이의 관계]

1. 우리는 평등한 관계를 지향한다. 각자 다른 주체임을 인정하고 존재 자체를 존중한다. 또한 소외되는 사람 없이 조합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조합원 간의 호칭은 '동지'라 하고, 상호간 존댓말을 사용한다. 조합원 간 소통을 위해 서로가 편안한 소통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분업]

1. 우리는 주체의식을 갖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자발적 주체다. 동지들과 협력을 통해 역할을 수행한다.
1. 성별 고정관념에 근거한 업무분담을 하지 않는다.

[다름에 대한 존중]

1. 장애, 이주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금속노조에도 성소수자 조합원이 있다. 다양한 성적지향을 존중한다.
1. 동지의 외모는 개성으로 인정하고, 평가하지 않는다. 외모에 대한 칭찬도 듣는 이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한다.
1. 음주를 강요하지 않으며, 뒷정리는 함께 한다.

[문제제기를 대하는 태도]

1. 누군가의 불편함을 사소하게 여기지 않는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노력한다.
1. 문제제기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간다.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함께 배우고 성장한다.

자료집 순서

5·18 (정태춘)	4
금속노조가	5
전국금속노동조합 평등수칙	6
5·18 정신계승 역사기행 취지 및 일정표	8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GGM)지회 투쟁보고대회	9
금속노조 교육지(제46주년 5·18 민중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11
5·18 광주항쟁에 관하여... ..	15
[참고자료] 시기별 노동열사 98명 (1970년~199년)	25

5·18 역사기행 배경 및 일정표

1. 배경 및 목적

- 경주지부는 2024년 여순항쟁, 2025년 광주항쟁 역사기행 등을 통해 노동자 계급의 뿌리를 찾아왔음. 특히 지난 광주항쟁 역사기행에서 확인한 감동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 노동자민중의 삶을 관통하는 투쟁의 서사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
- 2025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라는 친위쿠데타 시도를 막아낸 것은 거리로 쏟아져 나온 노동자민중들이었음. 하지만 친노동을 자처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듯한 '착시현상' 속에서 노동권 투쟁은 오히려 복잡해지고 있음
- 5.18이라는 노동자민중의 항쟁을 과거의 기억으로 남겨두지 않고, 국가폭력에 맞섰던 노동자민중의 단결로서 다가가야함. 청년위원회를 필두로 노동자계급의 뿌리를 찾는 5.18 정신계승 광주항쟁 역사기행을 통해 진행하고자 함

2. 일정표 *세부내용은 현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시간	5월 15일(금)	비고
08:00 ~	경주, 울산 출발	3시간 소요, 30분 휴식
11:30 ~	점심 식사	서진주 한정식 (북구 석곡로 630)
13:00~13:30	5.18 민주묘지 헌화 및 묘소 참배	국립 5.18민주묘지 관리소 (북구 민주로 200)
13:30~13:40	버스이동(10분)	
13:40~15:00	민족민주열사묘역 참배 (망월동 구묘역)	해설 1, 2, 3조
15:00~15:30	버스이동(30분)	
15:30~16:40	상무대 옛터	5.18 자유공원 (서구 상무평화로 13)
16:40~17:00	버스이동(20분)	
17:00~17:30	광주전남지부 GGM지회 투쟁보고대회 ※세부내용 아래 표	광주시청 앞 GGM지회 천막농성장
17:30~18:00	버스이동(30분)	
18:00~20:00	저녁 식사	도깨비 무한리필 (광산구 사암로 214, 1층)
20:00~20:30	숙소 이동 후 휴식	광주하남일번지호텔 (광산구 무진대로211번길 7 B동)
시간	5월 16일(토)	
07:00~09:00	아침 식사 1호차: 07시~ / 2호차: 08시~	순차적 간편조식(라면, 밥, 샌드위치 등) or 개별식사가능
09:30~10:00	버스이동(30분)	-
10:00~12:30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전일빌딩, 전남도청 일대	해설 1, 2조
12:30~15:00	점심 식사 및 휴식	개별진행
14:30~15:40	전국노동자대회	광주역 특설무대
16:00~	복귀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GGM)지회 투쟁보고대회

※ 사회: 광주전남지부 권오산 노동안전보건국장

시간	내용	기타
16:50~17:00	대오정비	천막농성장 앞
17:00~	환영인사	사회자
17:05~	투쟁경과보고	광전지부 GGM지회 김진태 지회장
17:10~	경주지부 연대발언 (1)	경주지부 황준하 부지부장 (지부 청년위원장)
17:15~	경주지부 연대발언 (2)	경주지부 청년위원 중 1인
17:20~	경주지부 연대발언 (3)	5.18 역사기행 참여자 중 1인
17:25~	금속노조가 제창 및 현수막 게시	다같이
17:30	폐회	

※ 경주지부 자체 앰프 준비함

※ 대오 옆 현수막 4개 배치 → 대회마무리 후 현수막 게시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 ‘상생’의 이름으로 시작된 일터와 그 이면....

: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지난 2021년 문재인정부 당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 아래 대한민국 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출범함.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체결한 투자 협약서에 따라, 노동자들은 기존 완성차 업계의 절반 수준인 ‘적정 임금’을 받는 대신 지자체의 복지 지원을 약속 받았음. 하지만 사측은 법적 효력이 모호한 ‘노사상생협의회’ 체제를 앞세워 **노동조합의 존재를 부정하고, 작업장 내 휴대폰 수거와 같은 감시위주의 통제를 지속하며 노동탄압을 지속해오고 있음**

- 청년노동자들의 분노를 모아 금속노조 깃발로!

: 2024년, GGM의 주축인 청년 노동자들은 더 이상 ‘상생’이라는 노동탄압의 또 다른 이름을 거부하며 ‘청년을 악용하는 GGM을 규탄한다’는 슬로건과 함께 금속노조의 깃발을 올렸음. 사측은 누적 생산 35만대 달성 전까지 단체교섭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노조간부 징계 등 악랄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음. 이에 맞서 지회는 관리·감독 책임을 방관하는 광주광역시를 규탄하며, 현재까지도 100일 넘게 광주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는 등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음

- ‘민주주의 성지’ 광주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 5.18 민주화운동은 국가의 부당한 폭력에 맞서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지키려 했던 항쟁임. 그 정신을 계승한다는 광주광역시에서 ‘상생’을 명분으로 청년노동자들의 탄압을 방관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이 아님. 5.18 당시 광주 공동체가 주먹밥을 나누며 보여준 진정한 ‘상생’은 강요된 희생이 아닌 자발적인 연대였음. 민주와 평등의 가치가 일터 내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함

관련 동영상, 기사



[KBS] 사회적 임금은 헛구호?...청년 떠난다

- 광주글로벌모터스, GGM 에서 청년 노동자들이 잇따라 일터를 떠나고 있음. 안정적 고용과 사회적 임금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목표로 한 광주형 일자리가 흔들림. 그 이유를 청년 노동자에게 직접 들어봄

동영상 보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가 4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시청 앞 천막농성 101일 최대 주주 광주시 역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참여와 혁신] 광주시 '방관'속 100일 넘긴 GGM 노조 농성

-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광주시청 앞 농성 100일 넘겨
- 광주시에 노사민정협의회 조정중재위 가동 등 촉구

기사 전문





모든 노동자의 권리 쟁취! 침략전쟁 중단! 평등·평화·민주주의 시대로!

제46주년 5·18 민중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3호

2026년 5월 11일(월) / <https://www.kmwu.kr> / 02-2670-9555 / 금속노조 교육실

유신체계의 종말과 민주화의 봄, 신군부의 계엄령 전국 확대

70년대 말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지배계급 내부의 갈등이 격해지고, YH사건, 부마항쟁 등 박정희 유신독재에 맞서 민중들의 저항이 분출했다. 마침내 10.26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박정희가 피살되어 유신체제가 종말을 고하는 듯했으나 12.12 군사쿠데타를 통해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가 또다시 권력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군사독재의 폭압에 억눌렸던 민중들은 신군부의 등장에서 학생, 지식인, 노동자들 각계각층에서 거세게 일어났다. 5월 16일 서울역에는 대학생, 시민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모여 ‘신군부’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조직했다.

그러나, 대학생 간부들은 군부에게 정권탈취의 빌미를 주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시위를 중단하고, ‘서울역 회군’을 결정함으로써 신군부에 맞선 전국적 투쟁 확산의 계기를 스스로 접고 말았다.

이후 5월 17일 ‘신군부’는 ‘계엄령 전국확대’를 단행함으로써 유신독재체제의 종말로 잠시간 열렸던 유화국면인 ‘80년 민주화의 봄’은 막을 내렸다. 이와 함께 전국에 검거선봉이 몰아쳤고 주요 지점마다 계엄군이 증강 배치되었다.

계엄군의 살육에 맞선

광주 시민들의 처절한 항쟁, 대동의 공동체

그러나 5월 18일 광주의 학생들은 서울지역 학생 간부들의 ‘서울역 회군’에도 불구하고 ‘신군부’의 ‘계엄령 전국확대’에 정면으로 맞섰다. ‘비상계엄철폐’를 외치는 전남대생에 대해 공수부대원들은 곧

봉을 무차별적으로 난타하는 등 상상할 수 없는 야만적 폭력을 저질렀다. ‘신군부’에 맞서 학생들의 시위는 광주시 전역으로 확산되고, 시위 중심세력이 학생에서 시민으로 바뀌어 갔다. 언론에서는 광주 시민들을 불순세력이 개입된 ‘폭도’로 몰아붙였고, 계엄군들은 총검을 사용한 무참한 살육을 자행하였다.



광주 시민들은 무자비한 총검에 맞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무기를 탈취하고 무장을 시작했다. 공수부대는 공포의 유혈 진압을 조금도 멈추지 않았지만, 시위대열은 차츰 불어났고 차량시위 등 투쟁은 한층 격렬해졌다.

이러한 시민군의 격렬한 투쟁에 밀려 계엄군은 도청에서 밀려 나가 한때 광주는 해방공동체를 이루었다. 계엄군의 봉쇄조치로 다른 지역과 차단된 광주 시민은 식량과 생활필수품을 공급받을 수 없었지만, 약탈 등의 범죄행위는 없었으며 스스로 공동체의 질서를 잡아 나갔다.

식량이 떨어진 이웃과 쌀을 나누었으며, 부녀자들은 주먹밥과 음료수를 이고 거리로 나와 곳곳에서 시민군에게 나누어주었다. 의사와 간호원들은 정성

을 다하여 부상자들을 치료해 주었다. 나이 어린 여학생들까지 헌혈에 앞장서 혈액은 남아돌았다. 그렇게 광주는 군사파쇼 계엄군의 무자비한 폭력에 맞서 항쟁과 대동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저 전두환 살인 집단에게 도청을 내준다면 우리는 죽어간 영령들과 역사 앞에 죄인이 됩니다. 우리가 비록 저들의 총탄에 죽는다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 시민학생투쟁위원회 대변인 故 윤상원 열사의 발언 中

최후의 항쟁, 죽음으로 지켜낸 민주주의 정신

계엄군은 ‘총기소지자는 26일 오전까지 국군통합병원 및 각 경찰서에 무기를 반납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무력진압의 협박을 계속해 왔다. 재야인사를 중심으로 한 도청수습위원회와 학생수습위원회가 시민군의 무기회수를 결정한 것에 대해 10만 광주시민 참가한 쉼기대회에서 공개적 비판이 제기되고, 시민군 대표의 「우리는 왜 총을 들 수 밖에 없었는가」가 공개적으로 낭독됐다.

끝내 전두환 신군부에 굴복하지 않고 결사항전할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민학생투쟁위원회가 구성되어 새로운 지도부를 세우고, ①최규하 정부의 퇴진 ②계엄해제 ③전두환 처단 ④구속자 석방 ⑤시민 명예회복 및 사상자 피해보상 ⑥민주정부 수립 등을 목표로 투쟁할 것을 결정했다.

80년 5월 27일 새벽 2시 30분, 학생, 시민들이 7일째 점거하고 있던 도청에 계엄군의 진압이 시작되었다. “고교생, 너희들은 나가라. 우리가 싸울 테니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역사의 증인이 되어라.” 그리고 시민군들은 도청을 사수하며 계엄군의 총탄에 쓰러졌다.

그렇게 광주의 시민군은 살아서 전두환 군부에 굴복하지 않고, 죽음으로 군부의 억압과 폭력을 거부함으로써 무수히 죽어간 광주 시민들의 민주주의에의 열망을 끝내 지켜내고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한 것이다.

‘5월 정신’ 을 지키기 위한 살아남은 자들의 투쟁



10일간 전개된 광주항쟁은 공식 통계만 보더라도 즉사자 154명, 행불자 74명, 상이 후 사망자 95명, 부상자 3,310명, 구속 및 구인자 1,430명 등 총 5,063명에 이르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광주항쟁에서 살아남은 목격자들은 실제 사망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섰다고 증언한다.

전두환 신군부는 광주는 ‘불순분자가 개입된 폭도들의 난동’으로, ‘광주사태’로 영원히 묻어두고 싶었을 것이다. ‘5월 광주’의 실상이 알려지는 것 자체가 전두환 군사정권의 존립 자체를 뒤흔들 것이 명확했기 때문이다.

5월 광주는, 전두환 군부에 반대했지만 그저 광주의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살아남은 이들에게 뼈아픈 반성과 역사적 책무를 남겨주었다. 80년대 살아남은 이들은 5월 광주 민중들의 항쟁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 패배한 것을 자신의 과오로 여겼고, 그러한 역사를 재현하지 않기 위해 광주의 패배를 반성하며 이념적, 조직적으로 급진적인 실천을 모색했다.

또한, 5월 광주는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의 실체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운동진영에게 미제국주의의 본질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광주사태’라는 치욕적인 이름으로 불리우며 전두환 군부와 지배세력에 의해 잊혀지기를 강요당했던, 5월 광주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투쟁을 지속

적으로 전개하였다.

불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1997년 4월 18일 대법원은 ‘헌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한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며 신군부 세력을 처벌했다.

전두환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 노태우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 원, 황영시 징역 8년, 정호용 징역 7년 등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주동자 15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세계 역사에서 전직 대통령 2명이 한꺼번에 감옥에 간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1997년 12월 22일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모두 석방되었다.

당시 집권을 눈앞에 둔 김대중 후보가 ‘영호남 지역감정 해소’를 이유로 5.18 단체와 국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사면을 강력히 주장했던 결과였다. 그 후 전두환 등 신군부에게서 ‘진정한 참화’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불철저한 진상규명과 미약한 책임자 처벌은 시간이 흐르면서 ‘5.18 역사 뒤집기’와 ‘왜곡’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2017년 초까지 이어진 이명박, 박근혜 두 보수 정권 아래서 극우 선동가들에 의해 5.18 민주항쟁은 극도로 왜곡되고, 역사적 평가에 대한 근본 시각마저 크게 흔들렸다. 79년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쿠데타 이후 45년 만에 현직 대통령 윤석열이 12.3 친위쿠데타를 일으키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12.3 내란에 맞서 시민들의 투쟁과 저항으로 다시 살아난 5월 정신

계엄군에 맞섰던 무수한 광주 민중과 마지막까지 항쟁에 참여한 5월 열사들은 사회에서 억압받고 착취당하던 노동자와 민중이었다. 그들은 아무런 조건과 대가도 없이 신군부의 불법적 권력 찬탈에 항

거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며 투쟁했다.

광주 민중의 투쟁과 고귀한 희생은 이후 우리나라 민주주의 투쟁의 횃불이 되었다. 그들의 헌신적 투쟁을 추모하고, 광주항쟁의 진상을 밝히는 투쟁을 통해 민주주의 운동은 성장해 왔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포고하고 군을 동원하는 순간 시민들은 광주학살을 떠올리며 국회로 달려가 맨손으로 계엄군에 맞섰다. 이것이야말로 광주의 열사들이 오늘의 우리에게 남긴 고귀한 정신이다.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다.

5월 광주의 저항정신, 대동정신 계승!

모든 노동자의 권리 쟁취로

침략전쟁 중단! 평등·평화·민주주의 시대로

우리는 해마다 5월을 마주할 때 참혹했던 광주를 떠올린다. 5월 광주는 우리에게 민주주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우고, 깨어있는 시민들의 저항정신을, 우리 사회공동체가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 평등과 평화를 위해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민주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 정신을 우리 헌법에 새겨야 한다. 불의한 권력에 맞서 스러져간 그 정신이 오늘 우리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정신이 살아있는 헌법으로 거듭나, 노동자와 민중의 권리를 지키는 근거가 되기를 바란다. 그 또한 광주를 과거의 기억이 아닌 오늘의 삶으로 기리는 일일 것이다.

오늘날 세계는 빅테크를 위시한 대자본의 탐욕과 이윤추구를 위해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제국주의 강대국의 침략전쟁으로 수많은 민중들이 죽어가고 고통받고 있다. 한국사회 또한 이러한 세계적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제조업을 포함한 일자리는 줄고, 자본은 공장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 AI와 자동화는 고용 대책 하나 없이 노동자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전쟁광 미국 트럼프는 안보 비용과 경제적 희생을 더 요구하며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천만 명에 육박하며 다시 늘고

있다. 임금 격차는 6배까지 벌어졌고, 대기업과 하청 노동자의 격차는 끝이 없다. 노동 양극화,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제 금속노조가 민주노총과 함께 불평등 해소와 평등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또한 수많은 민중들을 학살하고 세계경제와 민중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중단하기 위한 사회적 연대에 함께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평등·평화·민주주의, 원청교섭·초기업교섭 쟁취를 위해 함께 요구하고 함께 투쟁하자!

제46주년 5·18민중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2026. 5. 16(토) 14:30, 광주역 앞 특설무대

모든 노동자의 권리 쟁취로!
침략전쟁 중단!
평등·평화·자주의 시대로!

오월의빛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중의 오월정신! 불평등 대

주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관 민주노총 광주본부 후원 518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5·18 광주항쟁에 관하여...

5·18 관련 영상



[꼬꼬무 29회 요약] 계엄군의 증언 "빨갱이라고 세뇌당했다" 그날 총구가 시민을 향한 이유

동영상 ↓↓



<https://m.site.naver.com/261V2>



[꼬마카세 EP.3] 12.12 이전에 10.26, 그전에 유신헌법이 있었다

동영상 ↓↓



<https://m.site.naver.com/26205>



[꼬꼬무 139회 요약] 쿠데타의 주역은 단죄받았나? 전두환의 마지막 이야기

동영상 ↓↓



<https://m.site.naver.com/2623W>



[JTBC 뉴스룸] '전두환 지시'로...망월동 묘역 없애려던 '비둘기 계획'

동영상 ↓↓



<https://m.site.naver.com/2626y>



[뉴스타파 목격자들] '임을 위한 행진곡'의 유래

동영상 ↓↓



<https://m.site.naver.com/2627Z>

1.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란?

-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혹은 광주민중항쟁(光州民衆抗爭)은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광주시민과 전라남도민이 중심이 되어 △조속한 민주 정부 수립,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의 퇴진, △계엄령 철폐 등을 요구하며 전개한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이다.

2. 5.18 광주항쟁 과정

□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피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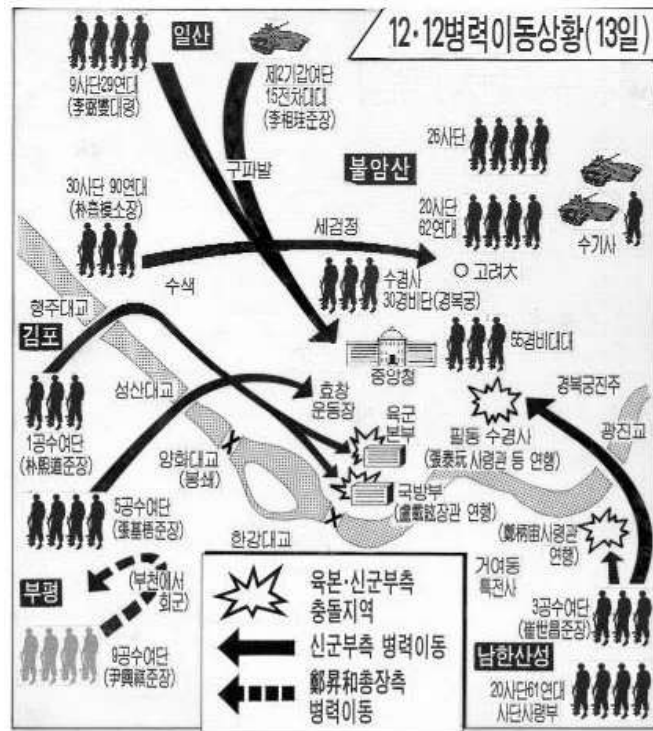
- 독재정권의 변화를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비로소 민주주의가 실현되리라는 희망을 가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1980년을 '서울의 봄', '민주화의 봄'이라 불렀다.

□ 1979년 12월 12일. 신군부 쿠데타

- 대한민국 육군 내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의 쌍두마차 전두환과 노태우가 주도하는 신군부가 쿠데타(내란 혹은 군사반란)을 일으켰다. 이 사건 이후 전두환은 정권을 친탈하고 노동자민중을 탄압하는 비민주적인 조치들을 강행했다.

□ 1980년 3월경. 학원민주화 열풍

- 각 대학에 학생회·평교수회가 부활했음. 1972년 시행된 긴급조치¹⁾로 밀려났던 해직교수와 제적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했다. 27개 대학 학생대표들은 집회와 가두시위를 일제히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5/14 광화문·종로에 5만여명, 5/15 서울역광장에 학생·시민 20만여명이 운집하게 되었음. 이들은 계엄철폐, 민주화추진을 요구했음



1979.12.12. 신군부 병력 이동상황



1980년 5월 서울역에 모인 학생·시민 20만여명

1) 1972년 시행된 헌법 제8호에서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정 전반에 대한 국가긴급권. 한국 헌정 사상 도입된 가장 강력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이 조치를 발동함으로써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

- 계엄사령부는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옥내외 집회시위 금지, 언론출판보도 및 방송의 사전검열, 각 대학의 휴교령, 직장이탈 및 태업파업의 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정치인의 손발을 묶고, 학생과 민중들의 투쟁에 쐬기를 박았다. 이어 18일에는 김대중, 김종필 등 26명의 정치인을 학원·노사분규선동과 권력형 부정축재혐의로 연행했다. 김영삼 또한 연금당했다.

□ 1980년 5월 17일 22시경. 계엄군이 광주로 투입됨

- 5월 17일 계엄확대조치에도 광주에서 학생들의 시위가 멈추지 않았다. 광주시민들 또한 이를 반대하지 않았고, 학생들의 시위에 호응했다. 광주는 재야정치인(김대중)을 통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큰 지역이었다. 비상계엄확대에 따라 전라북도 금마에 주둔하고 있던 제7공수부대가 17일 22시경 광주에 투입되어 전남대·조선대·광주교육대 등에 머물며 광주지역을 무력통치했다.

„ 항쟁의 시작 „

□ 1980년 5월 18일 10시경. 전남대 학생과 공수대원 첫 충돌

- 전남대 정문 앞에서 20명 남짓한 전남대 학생들과 공수대원 사이에 첫 충돌이 있었다.

□ 1980년 5월 18일. 작전명 ‘화려한 휴가’, 그리고 첫 발포

- 공수부대는 광주지역 전면 점령을 위한 작전을 수행한다. 노동자민중 저항세력과의 마찰이 가중되면서 공수부대의 진압은 ‘살육’으로 이어졌다. 20일 밤 계엄군은 시민들에게 총을 쏘기 시작했다. 계엄군의 첫 발포였다. 5월 18일 ‘피의 일요일’은 광주 전체를 술렁거리게 했다.



‘민주회복’, ‘계엄령을 즉각 해제하라’

□ 1980년 5월 19일. 최초의 사망자 발생

- 19일 날이 밝자 광주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계엄군의 잔혹한 진압에 맞서 고등학생과 시민들까지 거리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계엄군의 폭력에 분노한 사람들이 금남로로 쏟아져 나왔다. 이제 항쟁의 주체는 학생들에서 광주시민들로 바뀌었다. 계엄군은 장갑차를 앞세워 시위를 진압했고, 최초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김경철 / 국립 5·18묘지 묘역번호 1-1)



계엄군이 곤봉, 대검, M16 소총으로 잔인하게 시민들을
학살하자 광주지역 운송노동자들이 거리고 나서며
“우리들이 차를 끌고 와서 방패가 되어주자”고 외침

□ 1980년 5월 20일. 택시, 버스, 트럭의 차량 시위

- 2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거리에 집결했다. 특히 택시, 버스, 트럭 운전사들이 차량시위를 벌이며 항쟁의 기세를 높였다. 택시, 버스를 모는 사람들은 노동자들이다. 또한 시민들은 왜곡보도를 일삼던 MBC 방송국을 찾아가 방화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 집단 발포와 시민군의 형성 ”

□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의 집단발포

- 일부 시위대는 금남로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다. 신군부는 13시 정각, 도청에서 울려 퍼지는 애국가에 맞춰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했다. 이날 총격으로 항쟁기간 중 가장 많은 희생자가 생겼다. 21일 오후부터 시민들은 인근지역 무기고를 열어 무장하며 시민군을 결성했다. 이후 시민군이 계엄군을 광주에서 몰아냈다.

□ 1980년 5월 22일. 광주시민들의 자치적 운영

- 계엄군이 물러난 광주는 시민들에 의해 자치적으로 운영됐다. ‘5·18 시민 학생 수습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태수습을 논의했다. 이들은 연행자석방 등을 요구하여 계엄당국과 협상에 나섰다. 하지만 신군부는 ‘무조건적인 투항’만을 요구했다. 수습위원회는 투쟁을 끝까지 하자는 쪽과 무기를 반납하고 협상을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결국 무기를 반납하기로 했다. 끝까지 싸울 것을 주장한 시민군은 도청안으로 들어갔고, 새로운 항쟁 지도부를 구성했다.

- 동시에 신군부는 21일 19시30분부터 광주시 외곽 도로망을 완전히 차단했고, 22일 광주는 군인들에게 완전 포위당한 채 원천봉쇄 당했다.

□ 1980년 5월 22일. 고립된 광주, 계엄사령부의 거짓선동

- 광주에서 쫓겨난 계엄군은 병력을 보충하고 외곽을 차단하며 광주를 외부로부터 철저히 고립시켰다. 23일 계엄군은 ‘폭도소탕작전’을 세우고 시민군을 무력으로 진압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계엄사령부는 광주에서 불순분자와 간첩들이 파괴·방화·선동을 벌이고 있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25일 경 신군부는 광주봉쇄작전을 완료하고, 미국에게 광주진압에 필요한 병력사용을 승인²⁾받았다.

2) 당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부(CFC)에 있었음. 신군부가 광주에 추가병력(제20사단 등)을 투입하기

„해방 광주와 자치 공동체... 그리고 최후의 저항”

□ 1980년 5월 23일~25일. ‘해방 광주’

- 계엄군이 쫓겨난 이후 25일까지 광주 시내에는 이른바 ‘해방 광주’ 상태였다. 시민들은 주먹밥을 나눠주고 헌혈에 동참하며 해방광주를 함께 꾸려나가며 공동체를 꾸려나갔다. 매일 도청 앞에서 ‘민주주의 범시민 쉼기대회’도 열렸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부녀자들이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제공할 주먹밥을 만들기 위해 길거리에서 밥을 짓고 있다. 5·18기념재단 제공 (나경택씨 촬영)

□ 1980년 5월 26일. 계엄군의 최후통첩

- 계엄군은 5월 26일 18시까지 무조건 투항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하지만 항쟁지도부는 끝까지 싸울 것을 결정했다. 계엄군이 탱크를 앞세워 시내로 진입하려 하자, 시민들은 길에 누워 탱크를 막는 ‘죽음의 행진’을 시작했다. 끝까지 싸우자는 ‘항쟁파’와 무기를 반납하자는 ‘수습파’ 사이의 치열한 논의가 계속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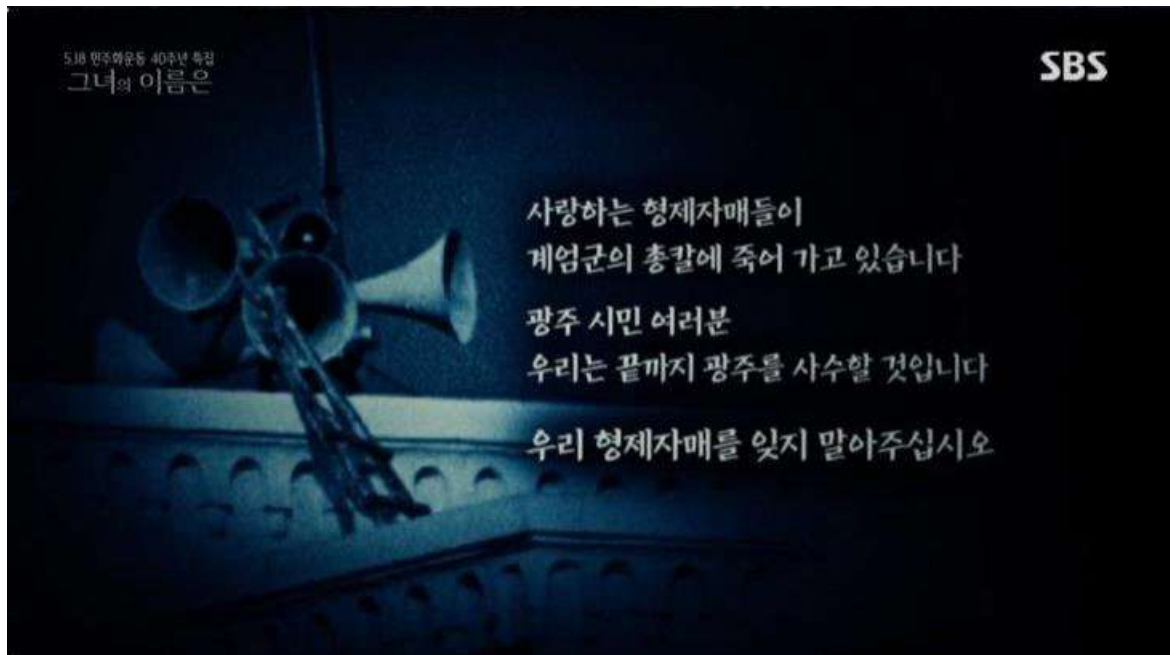
□ 1980년 5월 26일 자정. 계엄군의 도청 진입

- 5월 26일 자정 무렵 계엄군이 도청으로 진입했다. 시민군의 저항은 27일 새벽 5시까지 계속되었다. 도청을 진압한 계엄군은 광주 전역에서 여성들은 물론 초등학교생까지 폭도로 몰며 연행했다.

□ 1980년 5월 27일. 최후의 저항

- 새벽 3시경, 계엄군의 최후 진압 작전인 ‘상무충정작전’이 전개되었다. 도청에 남은 시민군은 끝까지 저항했으나, 새벽 5시 20분경 도청이 함락되면서 열흘간의 항쟁은 완전히 진압되었다.

위해서는 당시 연합사령관인 존 위컴(Wickham)의 승인이 필수적이었음. 1996년 미국 언론인팀 셔록(Tim Shorrock)이 정보공개법을 통해 입수한 미 국무부 기밀문서에서 확인한 내용임



“광주 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시민군을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광주를 사수할 것입니다. 우리를 잊지 말아주십시오”

1980년 5월 27일 새벽2시30분, 전남도청 1층 상황실 옆 방송실에서 시민군 상황을 마지막까지 알리던 박영순씨의 목소리다. 당시 그는 송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졸업반이자 광주여고, 전남여고 가야금 교사였다.

방송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계엄군에 체포되어 상무대 보안실에서 두 달 넘게 조사 받으며 온갖 고초를 겪었다. 박영순씨는 재판에 넘겨져 1년 실형 선고를 받고 6개월 복역하다가 형 집행 면제로 출소했다.

출소 후 그는 광주를 떠났다. 1987년 사면복권을 받았고, 2016년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3. 노동자들은 왜 광주를 찾는가?

– 우리는 5·18을 ‘민주화운동’으로만 배우면 안됨. 노동자의 관점에서 5·18을 해석할 수 있어야함. 1971년 이후 1999년까지 98명의 노동자들이 희생되었음.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님. 이 숫자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경계에서 누가 죽었는가”에 대한 질문임

- ① 1970년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심
- ② 1987년 이후 노동자 대투쟁은 전국 3천여 개 노조설립으로 이어짐
- ③ 1997년 IMF 이후 정리해고 반대투쟁 속에서 또 다시 노동열사들이 발생함

- 이 흐름을 관통하는 전환점 중 하나가 '1980년 5월 광주' 임. “국가폭력 앞에서 시민이 주체가 될 수 있다”는 5월 광주의 경험이 있었기에 1987년 노동자 대투쟁도 가능했을 것임
- 5.18은 정치적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노동자가 역사주체로 등장하는 상징적인 사건임

4. 5.18 현장에 스며 있는 열사의 행적

1) 광주역: “광주가 없었다면 1987년 노동자대투쟁은 없었다”

- 5월 18일 국가폭력이 처음 시민을 향해 노골적으로 행사된 자리는 전남대 앞입니다. 그러나 5월 20일 밤 항쟁이 절정으로 치달았을 때 계엄군 3공수여단 병력이 무장하지 않은 시민을 향해 한 밤중에 집단 발포를 한 현장은 ‘광주역’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광주역에서 5월 20일 밤 11시경 집단발포로 최소 7명이 사망했는데 그 중 6명이 노동자였습니다.
- 1970년대 노동열사들은 왜 분신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은 개별 사업장에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광주는 도시 전체가 집단으로 저항했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1971~1986년 사이에 노동열사들의 죽음은 박정희 유신체제와 전두환 군사독재, 노조 탄압, 산업재해 방치라는 구조 속에서 “고립된 저항”이었습니다.
- 그러나 광주는 ‘저항은 고립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경험은 1987년 울산·창원·인천·구로공단으로 이어졌습니다. 금속·조선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왔을 때, 그들은 이미 ‘광주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 1970년 전태일의 분신 이후 노동은 ‘권리’의 언어를 얻었지만, 여전히 고립된 사업장 투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주는 달랐습니다. 도시 전체가 집단적 주체로 등장했습니다. 이 경험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어집니다. 울산·창원·인천·구로에서 금속·조선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왔을 때,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국가폭력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넘어야 할 장벽”이라는 것을.

2) 도청: ‘끝까지 지킨다’는 것의 의미

- 도청은 최후 항전의 장소입니다. 윤상원 열사는 패배를 알면서도 끝까지 도청에 남았습니다. 왜입니까? “어떤 수단으로든 꺾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이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노동열사 98명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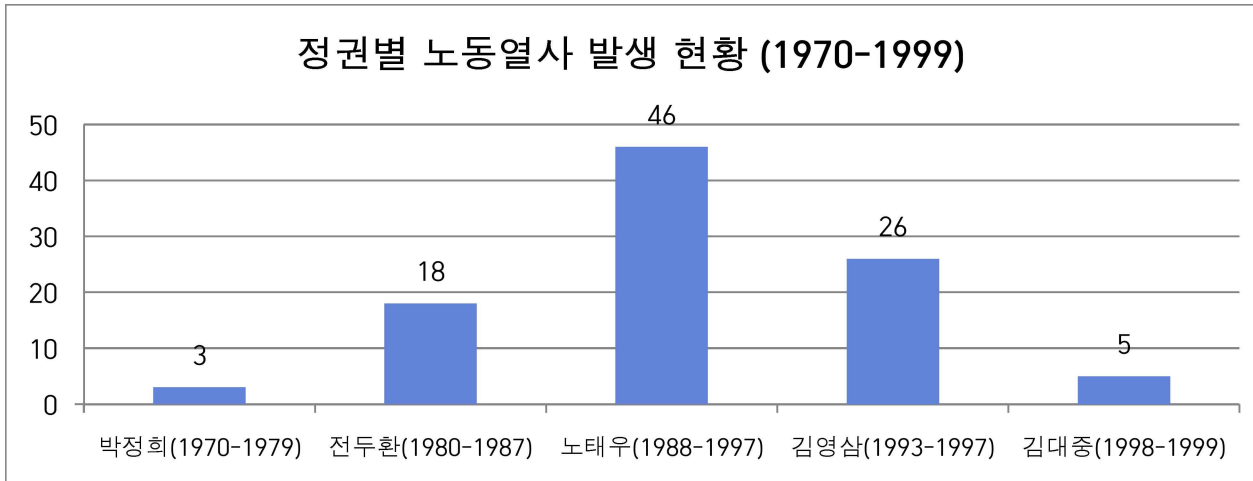
- 1987~1991년에 사망이 집중됩니다. 이 시기 금속·조선·자동차 사업장에서 ‘구속, 해고, 공권력 투입’ 속에서 많은 희생이 발생했습니다. 울산 현대중공업, 인천 대우, 마산 창원 공단...그들의 투쟁은 도청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물러나면, 다시 어둠이 온다”. 광주는 노동운동에게 “끝까지 지킨다”는 윤리적 기준을 남겼습니다.

3) 전일빌딩245: 국가폭력의 물증과 산업현장의 폭력

- 헬기사격 탄흔은 국가폭력의 물증입니다. 전일빌딩 헬기사격은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경, 도청앞 집단발포 시기, 혹은 5월 27일 새벽, 도청 최후 결사항전 진압작전 시기에 헬기에서 이 건물을 향해 발포한 총탄 흔적으로 밝혀졌습니다. 헬기사격은 민간인을 향한 국가폭력의 최고 단계입니다. 두 사건 모두 대량 희생이 발생했습니다.
- 국가폭력은 군화발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산재 은폐’의 형태로, 때로는 ‘정리하고 통보서’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광주가 국가폭력의 노골적 얼굴이라면, 노동현장은 구조적 폭력의 일상적 얼굴이었습니다. 따라서 5·18은 노동운동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민주주의는 공장 문 앞에서 멈추면 안 된다”**

4) 묘역 — 5.18은 노동운동의 전환점

- 국립5.18민주화운동묘역과 민족민주열사묘역(구 묘역)입니다. 노동열사들은 주로 구 묘역인 민족민주열사 묘역에 안장돼 있습니다. 이 두 묘역은 분리된 공간이 아닙니다. 1970년대 전태일 세대, 1980년 광주, 1987년 노동자 대투쟁, 1997년 IMF 구조조정 반대 투쟁 등이 하나의 흐름입니다. 특히 1987년 이후 노동열사들의 증가는 5·18의 기억이 노동현장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줍니다.
- 광주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시작이었고, 노동열사들은 경제적 민주주의의 완성을 요구했습니다. 5·18은 단지 과거의 항쟁이 아닙니다. 광주가 없었다면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은 없었을 것입니다. 광주가 없었다면 노동자는 ‘임금 인상 요구자’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광주는 노동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역사의 주체다”**
- 1971~1999년 98명의 노동열사는 광주 이후, 민주주의를 일터로 확장하려다 쓰러진 이름들입니다. 우리는 5.18묘역에서 정치적 민주화의 희생을 기립니다. 이 곳에 묻혀 있는 노동열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1987년 이후 노동현장은 민주화를 위한 또 다른 전선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치적 민주화가 1987년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노동현장에서 계속 싸워야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흐름은 1971~1999년 98명 열사 통계가 보여주는 변화와 일치합니다.



- 5·18은 단순히 정권교체의 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노동자에게 “우리는 시민이며, 역사의 주체”라는 자각을 주었습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은 5·18 기억 위에서 폭발했습니다. 광주의 총탄은 멈췄지만, 국가폭력은 산업재해, 정리해고,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변형되었습니다. 금속·조선 노동자들은 광주를 기억하며 공장을 점거했습니다. IMF 이후 생존권 투쟁도 “광주의 공동체 정신”을 계승했습니다.
- “광주가 정치적 민주주의를 열었다면, 금속·조선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민주주의를 완성하려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71~1999년 98명과 그 이후 필사적으로 노동현장에서 투쟁을 이어갔던 노동열사들은 광주 이후, 민주주의를 경제 영역으로 확장하다 쓰러진 이름들입니다. 이곳 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 여러분들은 그분들의 역사적 뿌리가 광주에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5.18묘역에서 얻는 교훈]

- ① 광주는 ‘고립된 저항’을 ‘집단적 저항’으로 전환시켰다.
- ② 1987년 노동자 대투쟁과 그 이후 노동운동은 5·18의 역사적 연장선이다.
- ③ IMF 이후 구조조정 투쟁은 민주주의의 경제적 후퇴에 대한 저항이었다.
- ④ 노동열사들은 광주 정신을 일터로 옮긴 존재들이다.

[참고자료] 시기별 노동열사 98명 (1970년~1999년)

1. 시기별 노동열사 개요

정권	사망자	특징
박정희 (1970-79)	3명(3.1%)	1970년 전태일 열사, 노동운동 시작
전두환 (1980-87)	18명(18.4%)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시기
노태우 (1988-92)	46명(46.9%)	역대 최다 희생자 발생
김영삼 (1993-97)	26명(26.5%)	문민정부 출범, 갈등 지속
김대중 (1998-99)	5명(5.1%)	IMF 금융위기, 구조조정 갈등
	98명	

2. 시사점

1) 민주화 이행기의 비극 : 1987년 직선제 쟁취 이후 노태우 정권 시기에 47%로 가장 많은 희생 집중, 정치적 민주화 이후 노동 현장의 민주화 요구 격렬함.

☞ 1970년대는 ‘태동기’

☞ 1988~1989년은 노조 결성 시도와 저지하려는 공권력 및 구사대의 충돌이 가장 격렬한 시기, 변곡점, ‘폭발기’

☞ 1993년 문민정부 초기 11명 희생, 새 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기대와 실제 정책 사이의 괴리, 노사 갈등 심화, ‘격동기’

☞ 1970년대 ‘점’으로 시작, 80년대 후반 ‘거대한 산맥’ 형성, 90년대 후반 점차 감소 추세 ‘조정기’

2) 사회적 기록의 가치 : 20년 동안 독재 및 민주화 이행기에 98명이라는 수치는 한국 경제 성장 이면에서 노동자들의 거대한 희생 존재.

☞ 경제 및 사회 민주화의 주춧돌

3. 세부내용

1. 박정희 정권 시기 (1970년~ 1979년까지 총3명 사망)

– 1970년: 1명 / 1971년: 1명 / 1979년: 1명

(1) 전태일(1970년) : 70. 11. 13. 오후 1시 30분경 평화시장 앞길에서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거행하면서 분신 결행, 밤 10시경 성모병원에서 불꽃으로 산화

(2) 김진수(1971년) : 70. 12. 한영섬유 노동조합을 결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시정을 촉구했으나 71. 3. 18. 노조를 파괴하려는 구사대에게 피습당함, 5. 17. 운명

(3) 김경숙(1979년) : 78. 3. YH노조 대의원 선출, 79. 8. 9. 신민당사 점거농성, 8. 11. 새벽 2시 2천여명의 경찰 신민당사 난입, 강제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운명.

2. 전두환 정권 시기 (1980년~ 1987년까지 총18명 사망)

- 1980년: 1명 / 1984년: 1명 / 1985년: 1명 / 1986년: 3명 / 1987년: 12명

(4) 김종태(1980년) : 80. 6. 9. 17시 50분경 이대앞에서 "노동3권 보장하라", "유신잔당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고 광주학살 의분을 호소하는 전단을 배포하고 분신

(5) 박종만(1984년) : 84년 11월 노조 사무장의 부당 해고에 맞서 단식 농성에 돌입. 11월 30일 해고철회 요구를 위해 전무를 찾아갔으나 오히려 해고하겠다고 위협하자 이 소식을 들은 박종만 동지는 동료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사무실에서 밖으로 뛰어나오며 "노동조합 탄압말라, 사무장을 복직시켜라, 부당한 대우를 개선하라."고 외치며 분신. 오후 8시30분경 운명

(6) 홍기일(1985년) : 8월 15일 전남도청앞 금남로에서 '8. 15를 맞이하는 뜨거움의 무등산이여!'라는 유인물과 부모님과 형에게 보내는 유서를 뿌리면서 "광주시민이여! 침묵에서 깨어나라!", "학원안정법 반대투쟁에 결사적으로 나서자", "민주주의 만세, 민족통일 만세" 등의 구호를 외치며 분신 자살을 기도. 22일 임종

(7) 박영진(1986년) : 동일제강 민주노조 건설에 핵심적 역할을 해낸 그는 신흥정밀에 입사하여 부당노동 행위 및 임금착취에 대한 항의중 해고 철회 투쟁을 벌이다가 경찰과 회사측의 폭압에 맞서 "근로기준법 지켜라, 노동3권 보장하라"며 분신 운명

(8) 변형진(1986년) : 4월 30일 삼환택시의 부당해고에 맞서 오후 2시 30분경 회사앞에서 분신,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 5월 1일 운명

(9) 신호수(1986년) : 6월 11일 인천시 남구 도화가스에서 근무 중 서울 서부서 형사들에 연행후 행방불명. 6월 19일 전남 여천군 대미산 동굴에서 변사체로 발견

(10) 이순덕(1987년) : 86년 6월 28일 충청지역 교육민주화 실천 결의대회에 참가하는 등 충청지역 교육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다가 끝내 파면. 87년 1월 3일 학교 계단에서 쓰러져 5개월간의 투병 생활 끝에 31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

(11) 표정두(1987년) : 86년 호남대 자퇴후 야학교사로 활동, 87년 2월 하남공단 신흥 금속에 입사, 3월 6일 세종로 미대사관 앞에서 "내각제 개헌반대", "장기집권 음모분쇄", "광주사태 책임지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분신. 3월 8일 운명

(12) 황보영국(1987년) : 79년 성지공고 종퇴, 울산 현대중공업, 부산 삼화고무, 태화고무 근무. 87년 5월 17일 부산 상고앞에서 "독재타도", "광주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 "호헌책 동 저지하고, 민주헌법 쟁취하자"를 외치면서 분신. 5월 25일 운명

(13) 김현욱(1987년) : 85년 진흥요업 근무. 87년 6월 민주화 대투쟁 적극 참여. 8월 1일 사랑방교회 노동자들과 함께 인천지역 노동자 여름수련회 참여. 물에 빠진 동료를 구하고 운명

- (14) 이대용(1987년) : 77년 인천 석남동소재 선학알미늄 입사. 86년 동양튜브에서 임금인상 30%정취 투쟁. 87년 8월 1일 산마루교회노동자들과 함께 인천지역 노동자 여름수련회에 참여 하던 중 물에 빠진 동료를 구하고 운명
- (15) 박용선(1987년) : 85년 한국릴레이 근무. 백마교회 노동자들과 함께 인천지역 노동자 여름수련회 참여하던중 물에 빠진 동료를 구하고 운명
- (16) 유인식(1987년) : 87년 한국기독교노동자 인천지역연맹 대표자회의 성원, 6월 대투쟁 적극 참여. 8월 1일 샘터교회 노동자들과 함께 인천지역 노동자 여름수련회 체육부장으로 참여. 물에 빠진 동료를 구하고 운명
- (17) 이석규(1987년) : 84년 대우조선 입사, 선각소조립부 근무. 8월 22일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김우중 회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옥포아파트 사거리에서 동료들과 평화적 시위를 벌이던 중 오후 2시 40분경 폭력경찰이 쏜 최루탄을 맞고 대우병원으로 옮겼으나 오후 3시 30분경 운명
- (18) 이석구(1987년) : 80년 조흥택시 입사. 87년 8월 31일 노동조합 재결성, 위원장에 선출. 9월 2일 오후 8시경 회사측의 노조 탄압중지 요구에 대해 사장의 성의있는 답변이 없자 이에 격분하여 신나를 끼었고 분신, 9월 19일 운명
- (19) 김수배(1987년) : 86년 고려화학 입사, 살라트 기술부 근무. 87년 노동조합 사무장. 10월 16일 12시 40분경 노조탄압에 맞서 자재 창고 앞에서 분신
- (20) 김성애(1987년) : 86년 9월 12일 진흥요업에서 작업 중 화공약품에 의식을 잃고 반신불수. 87년 11월 3일 산재 중앙병원에서 산재없는 세상을 염원하며 투신, 운명
- (21) 박응수(1987년) : 82년 6월 투라가구에 입사. 87년 12월 5일 대전역 광장에서 경찰과 대치 중 "후보단일화 하라"고 절규하며 분신 산화

3. 노태우 정권 시기(1988년~1992년까지 총46명 사망)

- 1988년: 12명 / 1989년: 12명 / 1990년: 7명 / 1991년: 9명,
- 1992년: 6명

- (22) 이대건(1988년): 81년 마산 우성택시 입사. 88년 1월 6일 파업농성 19일째에 협상이 결렬되자 단체 협상 위반에 항의하며 회사 앞에서 분신. 1월 8일 운명
- (23) 정경식(1988년): 84년 대우중공업 창원공장에 입사. 87년 노조지부장 선거운동에 참여. 87년 6월 8일 실종. 88년 창원 불모산에서 유골로 발견. 민주노조 건설과정에서 타살로 추정
- (24) 김장수(1988년): 87년 인천 경기교통 노조 조합장 활동중 해고. 88년 3월 1일 회사내의 부당해고에 맞서 단식농성중 분신. 88년 3월 9일 운명
- (25) 오범근(1988년): 73년 후지카 대원전기 입사. 76년 프레스공으로 작업중 4손가락이 잘리는

산재를 당함. 당시 4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을 뿐이며 이후 수위로 근무. 88년 3월 10일 의문의 죽음을 당함. 파업농성 과정에서 구사대에 의한 타살로 추정

(26) **최윤범(1988년)**: 88년 고려 피혁 노조위원장 선출. 88년 4월 24일 해고 징계에 맞서 작업거부중 철야 농성. 88년 4월 25일 관리자들과 몸싸움중 분신. 88년 4월 30일 운명

(27) **장용훈(1988년)**: 87년 전남 순천 현대교통 택시운수회사 입사. 88년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노동행위와 노동조합 탄압에 항의하여 분신. 88년 5월 30일 운명

(28) **문용섭(1988년)**: 86년 서울 광무택시 입사. 88년 6월 9일 회사비리 폭로 과정에서 구사대의 폭행으로 운명

(29) **문송면(1988년)**: 87년 야간공고 진학을 위해 영등포 협성계공(주)에 입사. 88년 2월 8일 휴직계 제출. 3월 14일 수은중독 진단받음. 4월 7일 노동부 서울 남부지방사무소에 산재 요양신청서 제출. 노동부, 산재요양신청서 처리 지연. 6월 29일 여의도 성모병원 직업병과로 전원함. 점차 악화. 88년 7월 2일 운명. 당시 나이 만 15세

(30) **성완희(1988년)**: 86년 태백시 강원 탄광에 입사. 87년 파업시 노동자 대표로 선출되어 파업을 승리로 이끔. 88년 2월 경비직으로 부당전직 당했다가 투쟁으로 원직복귀. 88년 6월 동료해고자 복직을 위해 시위에 돌입. 88년 6월 29일 노조사무실에서 5명이 단식농성중 어용노조 대의원등의 각목 습격에 맞서 온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 7월 8일 운명

(31) **송철순(1988년)**: 87년 1월 세창물산 입사. 88년 6월 노조 창립과 함께 사무장으로 선출. 88년 7월 15일 파업기금마련 연대집회 준비로 현수막 설치중 추락. 운명

(32) **이문철(1988년)**: 86년 대원여객 입사. 88년 10월 부당하게 해고 당함. 88년 11월 1일 부당해고와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에 항의투쟁중 분신. 11월 6일 운명

(33) **배중손(1988년)**: 구미 금성사 근무. 87년 8월 회사측의 휴업조치 이후 어용노조의 민주화와 임금 인상 파업농성에 앞장서 투쟁. 이후 강제출장 명목의 납치. 정신병원 입원. 88년 5월 복직. 88년 11월 14일 운명. 회사의 고도의 노무관리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

(34) **최완용(1989년)**: 83년 인천에서 공장생활. 87년 산업재활원 방문, 환자들을 위로하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재해자들과 삶을 같이함. 89년 계양구 소재 흥업사에서 손가락 4개가 찢리는 산업재해를 당함. 89년 4월 9일 부평 철마산에서 산재없는 세상을 열망하며 분신

(35) **김윤기(1989년)**: 83년 국민대 입학. 86년 5월 5.3 인천 투쟁에 참가하여 구속되어 1년형 선고. 88년 7월 덕진양행 입사. 88년 11월 노조 결성, 위원장으로 선출. 89년 4월 23일 민주노조 사수과정에서 회사측과의 협상결렬 항의, 분신

(36) **김중수(1989년)**: 88년 7월 (주)서광 구로공장에 입사. 89년 1월 쟁의부장 임명. 89년 4월 18일 노동운동 탄압분쇄, 임금인상 완전쟁취, 서광 구로지구의 독자적 운영 쟁취등을 내걸고 파업 시작. 5월 4일 회사측의 탄압에 맞서 "무노동 무임금 철폐", "민주노조 사수", "동지들을 탄압하지 말라"고 외치며 분신. 운명

- (37) 이상남(1989년): 84년 현대 엔진 공업에 입사, 상기철구 공장 기능직 사원 근무. 87년 9월 12일 현대중공업 구사대 차량에 깔려 중상. 89년 5월 16일 612일간의 사투 끝에 운명
- (38) 조정식(1989년): 82년 서울대 입학. 84년 7월 제적, 범아산업에 취직. 86년 인천 진도에 입사하여 노동운동 시작함. 87년 11월 반제동맹사건으로 구속, 3년형 선고. 89년 영전기계에 취업. 89년 5월 24일 공장에서 산재로 운명
- (39) 이상모(1989년): 86년 광주 직업훈련원 수료. 대우조선 입사. 89년 5월 29일 대우조선 제3기숙사 7동 옥상에서 "대동단결 대동투쟁 원직복직, 임금인상 확실하게 쟁취하자."를 주장하며 분신, 투신
- (40) 박진석(1989년): 84년 인천 직업훈련원 수료, 대우조선 입사. 88년 진주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 89년 5월 29일 구사대 가입을 강요하자. "노동자와 노동자간의 싸움을 유발시키지 말라"며 항의, 분신, 투신
- (41) 이종대(1989년): 88년 기아산업 노조 대의원 당선. 89년 1월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배재정 씨 해고시 복직운동을 벌임. 89년 3월 25일 복직, 임금인상 쟁취를 위해 투쟁, 노조 민주화를 위해 헌신. 89년 7월 3일 노조 사무실에서 부당해고에 항의하여 분신. 89년 7월 8일 운명
- (42) 최성조(1989년): 89년 남성 흥진 노동자로 무노동 무임금 분쇄 결의대회 참가로 불구속. 89년 8월 2일 파업도중 구사대 폭력으로 구타당하여 실신(2차례 뇌수술) 89년 8월 5일 운명
- (43) 강현중(1989년): 87년 경동산업 입사. 88년 5월 디딤돌이라는 친목회를 구성하여 회장으로 활동. 89년 경동 노조 민주화 투쟁 파업에 참여. 89년 9월 회사의 부당징계조치에 항의농성. 89년 9월 4일 노무이사와의 담판이 결렬되자, 노무이사에게 신나를 끼얹고 함께 분신한 뒤 불 붙은 몸으로 조합원들에게 "경동의 동료들은 싸워 이깁니다. 노동자는 승리합니다." 라고 절규. 89년 9월 9일 운명
- (44) 김종하(1989년): 85년 인천 경동산업 입사. 89년 4월 임금인상 대책위원으로 활동. 89년 5월 디딤돌 친목회에서 적극적 활동. 89년 8월 디딤돌 친목회 임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에 항의하여 농성투쟁중 분신. 89년 9월 15일 운명
- (45) 이재호(1989년): 88년 협신사 입사. 89년 10월 29일 회사의 상상을 불허하는 폭력과 반인륜적 행위에 맞서 노조 재건을 위해 활동하던중 피살
- (46) 배주영(1990년): 85년 경북대 졸업.봉화여고 부임. 87년 11월 안동교협 창립, 부회장에 피선, 활동중 청송지역 산골마다 찾아다니며 조직작업. 88년 12월 청송 영양교협 창립. 총무부장 역임. 89년 해임후 진보에서 자취하며 전교조 활동을 계속함. 90년 2월 19일 연탄가스 중독으로 운명. 91년 유고집 '그 숨결 남아 아직 청송같이 푸르는데' 출간
- (47) 강민호(1990년): 85년 한신대 입학. 86년 건국대 애학투 사건으로 구속, 집행유예로 석방. 87년 구로구청 부정개표 사건으로 2년 선고. 90년 대봉전선 입사. 90년 4월 4일 야간작업중 기계에 휘말려 운명
- (48) 이영일(1990년): 89년 (주) 통일 입사. 90년 5월 3일 회사측과 경찰의 지속적인 탄압에 분

노, 항의하며 온몸에 신나를 붓고 분신, 투신

- (49) **최태욱(1990년)**: 90년 5월 9일 해고. 5월 14일 원직 복직. 5월 30일 재차 해고. 7월 8일 청도 천주교 성당에서 분신. 7월 14일 투병중 운명
- (50) **최동(1990년)**: 80년 성균관대 입학. 84년 부천에서 노동운동 투신. 89년 인노회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구속. 90년 8월 7일 한양대에서 분신
- (51) **박성호(1990년)**: 89년 안산 금강공업 (주)에 입사. 90년 8월 10일 노조 결성시 노조부위원장으로 선출. 90년 8월 30일 회사측의 경영부실을 이유로 무기한 휴업공고에 맞서 농성중 경찰의 폭압적 진압에 의해 전신 70%의 화상. 9월 11일 운명
- (52) **원태조(1990년)**: 89년 안산 금강공업에 입사. 90년 8월 10일 노조 결성시 후생복지부장으로 추대. 90년 9월 18일 운명
- (53) **김봉환(1991년)**: 77년 원진레이온 입사. 90년 퇴사후 1차 쓰러져 말을 더듬기 시작. 90년 11월 사당의원에서 이황화탄소 중독 의증 및 고열압으로 진단받음. 노동부와 회사측 요양 신청 거부. 91년 1월 5일 노동부로부터 요양신청서 접수 통보 받음. 91년 1월 5일 운명
- (54) **신용길(1991년)**: 89년 7월 전교조 부산지부 결성식에서 축시를 낭송해다는 이유로 구덕고에서 파면. 89년 8월 출근 투쟁을 하던 중 경찰에 연행. 감옥에서 단식투쟁을 하다가 발병한 위궤양으로 병보석. 90년 1월 전교조 부산지부 교과위원장. 91년 3월 9일 동아대 부속병원에서 위암으로 운명
- (55) **박창수(1991년)**: 90년 7월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당선. 91년 2월 제3자 개입금지와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 서울구치소 수감. 91년 5월 4일 의문의 상처를 입고 안양병원에 입원. 5월 6일 의문의 죽음을 당함.
- (56) **윤용하(1991년)**: 89년 성남피혁 근무, 민주화운동 직장 청년연합 회원으로 활동. 91년 5월 10일 "노태우 정권 타도"를 외치며 전남대에서 분신. 5월 12일 운명
- (57) **이진희(1991년)**: 91년 6월 8일 인천 삼미기공에서 임금인상 보고대회 도중 노동조합측의 타결안에 분노하여 분신. 6월 15일 한강성심병원에서 운명
- (58) **석광수(1991년)**: 86년 인천 공성교통에 입사. 91년 6월 14일 회사측의 성실한 교섭 자세를 촉구하기 위한 치량시위 도중 경찰의 폭력적인 조합원 연행에 항의 6월 15일 분신. 24일 운명
- (59) **유재관(1991년)**: 90년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회원으로 활동, 남부 노동반 반장, '인사연' 제8차 정기총회 준비위원. 91년 6월 27일 공권력의 '인사연' 사무실 침탈소식을 듣고 급히 나오다가 3층에서 실족 사망
- (60) **김처칠(1991년)**: 90년 합동물산 노동조합장 당선. 91년 조합장 재선. 91년 8월 22일 조합원들이 축구를 하다 한강에 공을 빠뜨리자 동지가 공을 건지겠다고 들어갔으나 탈진 실종. 행주대교 근처에서 시신 인양

- (61) 권미경(1991년): 90년 (주)대봉에서 미성공으로 근무. 91년 12월 6일 어용노조의 협조 속에서 30분 일 더하기 운동, 구사운동과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노동통제강화에 맞서 공장 옥상에서 투신자살
- (62) 임희진(1992년): 89년 신암중 부임, 전교조 분회결성 주도 해임. 90년 강남강동 지회 교육선전부 활동. 92년 암으로 운명
- (63) 박복실(1992년): 81년 태창 메리야스 노조위원장으로 당선, 민주노조 활동을 전개. 87년 전주 노동자의 집에서 사목 활동을 시작. 90년 전북노련 지도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였으나, 91년 6월 위암수술을 받게 되었고 8개월간의 투병생활을 하다가 92년 3월 운명
- (64) 오원석(1992년): 지병인 간암으로 8년간 투병생활을 하면서 교육민주화운동에 앞장섬. 90년 전교조 경북지부, 인천지부로부터 참교육상 수상. 90년 9월 지병인 간암으로 운명. 92년 4월 18일 안성군 양성면 덕봉리에 참교육비 세워짐
- (65) 윤재영(1992년): 전대협 결성 주도, 89년 수배중 대전 셋길 청년회 창립주도, 92년 10월 10일 노동운동을 하던중 천식으로 인해 운명.
- (66) 최성근(1992년): 88년 부산 평교사협의회 참가로 교육운동 시작. 90년 전교조 부산지부 사립지회 동래 지구장. 91년 전교조 대의원 사립지회 서구지구 대의원. 92년 12월 13일 지병인 간암으로 운명
- (67) 이광웅(1992년) : 82년 군산제일고 국어교사로 재직중 이른바 '오송회' 사건에 연루, 5년동안 옥중생활. 87년 군산 서흥중에 복직. 89년 전교조 가입으로 해직. 92년 12월 22일 지병인 위암으로 투병하다가 운명

4. 김영삼 정권 시기 (1993년~1997년까지 총26명 사망)

- 1993년: 11명 / 1994년: 5명 / 1995년: 4명 / 1996년: 5명 / 1997년: 1명

- (68) 정운갑(1993년): 88년 삼미특수강 입사. 90년 노조4대 대의원으로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 열심히 활동. 92년 임금동결 거부, 인원감축 반대 파업 투쟁시 암말기 진단을 받고도 자신의 몸을 돌볼 시간도 없이 투쟁. 93년 1월 25일 병상에서 운명
- (69) 채희돈(1993년): 89년 인천 남일금속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활동. 92년 12월부터 남일금속 회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 93년 2월 20일 새벽 6시경 과로가 겹쳐 뇌경색증으로 운명
- (70) 정영상(1993년): 89년 전교조 결성으로 복수여중에서 해임, 전교조 안동지회 부지회장. 90년 단양지회로 전출하여 활동. 93년 4월 14일 현장 방문을 마치고 늦게 귀가하여 자던 중 새벽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운명
- (71) 정영부(1993년): 89년 진주 대동기계공고 해직, 전교조 초대 진주지회장, 서부경남국민연합준비위원장 역임, 진주신문 창간논설위원. 90년 제1회 전교조 참교사상 수상. 93년 5월 13일 지병으로 운명

- 72) **조경천(1993년)**: 81년 한양합판 입사. 88년 5월 한양합판 노동조합 설립에 중추적 역할 담당. 91년 7월 노동조합 회계감사로 일하던 중 해고. 92년 7월 인천지방법원에서 해고무효 판정으로 승소. 93년 4월 고법에서도 승소했으나 회사측 복직 묵살. 5월 19일 심장마비로 운명
- 73) **고정자(1993년)**: 78년 원진레이온 입사후 처리 정련과에서 15년간 근무. 91년 직업병 증세 발견. 93년 5월 21일 직업병으로 운명
- 74) **박미경(1993년)**: 89년 대구 삼인중학교 영어강사로 근무. 91년 2월 부당해고. 93년 2월 전교조 대구지부 학생부장으로 활동. 93년 6월 26일 약2개월 동안 암으로 투병하다 운명
- 75) **서영호(1993년)**: 86년 현대자동차 입사. 91년 3대 집행부 정책연구부장, 교양지 "단결과 전진" 편집위원. 92년 1월 21일 경찰침투 대비 바리케이트 설치중 차량사고로 해성병원 입원. 의식불명인 상태로 520여일을 투병하다 끝내 93년 7월 1일 운명
- 76) **김주리(1993년)**: 82년 이화여대 정외과 입학. 89년 우진상사, 진영물상입사. 92년 해고자들과 함께 '미모사' 설립. 93년 7월 미모사에서 작업중 화재로 인하여 화상. 8월 8일 화상 후유증으로 운명
- 77) **임혜란(1993년)**: 88년 고려대를 중퇴하고 노동운동에 투신. 91년 인천지역 노동자들을 위한 문화공간 제공 및 기독교 복음전파를 목적으로 설립된 인천노동 선교문화원 창립에 참여. 92년 9월 백혈병으로 입원, 투병생활. 93년 9월 9일 신촌세브란스에서 운명
- 78) **최웅(1993년)**: 87년 경동산업 입사. 89년 경동산업 해고, 인해협에서 간사로 활동. 90년 인천민중교육연구소 실무간사로 근무. 92년 인천민중연합 노동자위원회 활동. 93년 인천민중연합부설 '우리' 노동상담실 노사부장으로 근무. 93년 10월 26일 신혼여행 중 사고로 운명
- 79) **김성윤(1994년)**: 80년 상호운수주식회사 입사. 86. 12.~92. 12.까지 상호운수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과 고문역임. 94년 1월 "김영삼 대통령에게 드리는 탄원서"를 작성하고 자결.
- 80) **김상옥(1994년)**: 86년 구로 동일기업 노조설립 투쟁으로 구속. 88년 한국민주노동자연합 편집위원. 90년 민족민주운동연구소 노동분과 국제분과 연구원. 92년 한국민주노동자연합 홍보부장. 94년 2월 19일 위암으로 운명
- 81) **최성묵(1994년)**: 86년 평택 시외버스인 서울여객입사. 노조대의원으로 활동. 90년 성보여객입사, 노조대의원, 노사위원, 상집위원 활동. 94년 3월 11일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와 조합원 탄압에 항거. 분신. 운명
- 82) **김낙성(1994년)**: 91년 한국통신노조 개혁모임에 참가. 92년 4월 서울지방본부 대의원 피선. 92년 7월 서울지역 노민추 결성. 93년 11월 전국 노민추 결성. 93년 12월 복지후퇴 및 직선제사수 투쟁위원회 구성. 94년 4월 17일 백혈병으로 운명
- 83) **임종호(1994년)**: 89년 금성사 창원대로 가두투쟁으로 1차 구속. 91년 1년 6개월의 실형만기로 석방. 92년 총액임금제 분쇄를 위한 굴뚝논성을 벌이다 2차 구속, 쟁의조정법과 업무방해로 실형 10월, 재판도중 법정 모독죄로 3년 실형 선고. 94년 9월 18일 진주교도소에서 운명

- 84) 양봉수(1995년): 90년 현대 자동차 입사. 92년 2월 성과분배투쟁 관련으로 해고. 93년 1월 원직 복직. 95년 2월 의장2부 마르샤 투입관련 회사측의 합의사항 불이행에 맞서 라인정지건으로 두 번째 해고. 95년 5월 12일 공동소위원연합 2기 출범식 참석을 위해 정문 진입시 경비들의 폭력적인 저지에 항거하며 본관정문 앞에서 분신. 95년 6월 13일 대구 동산병원에서 31일간 사투 끝에 운명
- 85) 박삼훈(1995년): 82년 대우조선 입사. 95년 6월 21일 사측의 살벌한 노동통제와 노무관리, 부당한 탄압에 맞서 분신후 투신, 운명
- 86) 서전근(1995년): 철도 민주화를 위해 95년 9월 4일 분신후 운명
- 87) 조수원(1995년): 86년 대우정밀공업에 병역특례로 입사. 91년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과 해고. 93년 마포 민주당사에서 38일간의 단식투쟁. 95년 12월 15일 민주당 서울시 지부에서 목을 매 자결
- 88) 김시자(1996년): 84년 한전부속병원 입사. 89년 3월 전력노조 한일병원 지부위원장 피선. 93년 3월 위원장 재선. 96년 1월 13일 어용노조의 부당한 징계에 맞서 분신, 운명
- 89) 김왕찬(1996년): 91년 한국통신 제주고산 전화국 노조지부장으로 활동. 94년 본사직할 본부위원장 피선, 서울로 이전함에 따라 독신으로 노동조합 활동. 96년 3월 23일 운명
- 90) 유구영(1996년): 88년 영등포 기계공단 노동조합 사무국장. 93년 서울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정책실장. 95년 민주노동정책 기획실 정책부국장. 96년 5월 2일 새벽 동지들과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간암으로 운명
- 91) 오용철(1996년): 88년 5월 서울 개봉전화국 발령, 어용노조 퇴진을 위한 "전민현"건설. 91년까지 어용퇴진, 위원장 직선제 과나철을 위해 전국적인 '노민추'활동. 91년 '체신부 부당간섭 저지투쟁위원회' 결성. 95년 민주노조 활동으로 서울구치소구속 수감. 96년 6월 18일 고려대 구로병원에서 운명
- 92) 박문곤(1996년): 96년 11월 10일 전국교사대회 및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버스 전복사고로 운명
- 93) 홍장길(1997년): 73년 연희교통(현 국민캡) 입사. 92년 노조 상임위원 재임. 94년 노조 고문으로 선임 활동. 97년 국민캡 휴게실에서 사측의 부당행위에 맞서 음독자결. 운명

5. 김대중 정권 시기 (총 5명)

– 1998년: 2명 / 1999년: 3명

- 94) 최명아(1998년):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86년부터 인천에서 현장활동을 하며 89-95년까지 인노협 교육부장, 조직부장으로 활동. 95년 민주노총 조직1부장으로 활동하던 중 98년 2월 정리해고 반대투쟁중 과로로 운명
- 95) 최대림(1998년): 85년 대우조선에 입사하여 13년간 근속하며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98년 2월 13일 정리해고, 근로자 파견법 입법화에 반대하면서 건조중이던

배위에서 분신 투신 운명하심.

96) 김종배(1999년): 공공연맹 교육실장 교통사고로 운명

97) 정성범(1999년): 전노협 활동, 지병으로 운명

98) 배동복(1999년): 영창악기노조 풍물패 활동 임단투기간 철야농성을 마치고 귀가도중 교통사고로 운명

[참고자료] 5·18 민중가요 악보 및 해설

임을 위한 행진곡

백기완 시
김종률 곡

사 - 랑도 명 - 예 도 이 름도 남김 없 어
동 - 지는 간 데 없 고 깃 - 별 만 나 부 께

한 평 생 나 가 자 던 뜨 거운 - 명 - 세
세 날 이 올 때 까 지 폰 들 리 - 지 말 자

세 월 은 울 러 가 도 산 천 은 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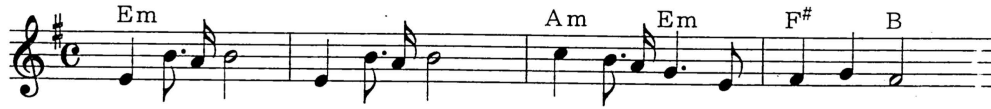
매 어 나 서 외 지 는 뜨 거운 함 성

앞 - 서 서 나 가 니 산 - 자 여 따 르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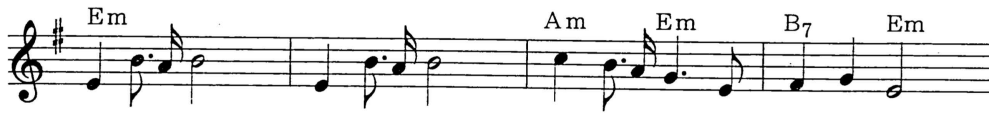
앞 - 서 서 나 가 니 산 자 여 따 르 라 *Fine*

- 1982년 5월, 백기완의 미발표 장시 「뫼비나리」(1980)의 한 부분을 차용하여 소설가 황석영이 가사를 짓고, 전남대 출신으로 대학가요제에서 수상한 바 있는 김종률이 곡을 지었다. 이 노래는 1970년대 말부터 광주주의 극히 광대에서 활동하던 문화운동 관련자들이 모여 지하방송 '자유광주의 소리'를 창설하기로 하고 첫 작품으로 만든 음악극 「넋풀이 굿(빛의 결혼식)」에 포함되어 있다.
- 「넋풀이 굿」은 1978년 광주에서 들불야학 교사로 활동하다 비운의 사고로 죽은 박기순 열사와 5·18민주화운동과정에서 산화한 윤상원 열사의 영혼결혼식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임을 위한 행진곡」은 고인이 된 두 남녀가 저승으로 가면서 '산 자'에게 남기는 마지막 노래로 배치되어 있다.
- 1980년대 말부터 이 노래는 민주화운동 집회를 시작할 때 민주화운동의 열사들에게 바치는 묵념과 함께 불리는 노래가 될 정도로 한국 민주화운동을 대표하는 노래가 되었다.

오월의 노래2



1. 꽃	잎처 럼	금	남로 에	뿌	러진 너	의	불	은	피
2. 왜	쏘았 지	왜	절렸 지	트	럭에 실	고	어	디	갔 지
3. 산	자들 아	동	지들 아	모	여서 함	께	나	가	자
4. 대	머리 아	쪽	바리 아	양	키놈	숫	은	꽃	대 아



두	부 처 럼	잘	려나 간	어	여쁜 너	의	젓	가	슴
망	월 동 에	부	릅 뜬 눈	수	천의 핏	발	서	려	있 네
욕	된 역 사	고	통 없 이	어	떻게 헤	쳐	나	가	랴
물	러 가 라	우	리 역 사	우	리가 보	듬 고	나	간	다



오 월 그날이 다 시오면 우 리 가슴에 불 은 피 솟 네

- 오월의 노래2는 1980년대 광주 5·18 관련 집회·시위에서 불리던 민중가요로, 원곡은 프랑스 샹송 'Qui a tue grand-maman'(누가 할머니를 죽였는가?)을 행진곡풍으로 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가사에는 광주민중항쟁의 참상과 분노가 직설적으로 담겨 있어, 공식 석상에서는 덜 불리지만 추모와 진상 규명 맥락에서 대표 민중가요로 언급된다.

광주출정가

고규태 글
정세현 곡

Dm F A Dm

동 지들모 여 서 함 께 나 가 자
루 정의깃 발 이 높 이 솟 았 다

Gm Dm B^b A⁷ Dm

무 등산정 기 가 우리 에 게 있 다
혁 명의정 기 가 우리 에 게 있 다

B^b F Gm A

무 엇 이 두 려 우라 출 정하 여 라
무 엇 이 두 려 우라 출 정하 여 라

Dm A B^b E⁷ A

영 원 한 민 주 화 행 진 을 위 해 나
역 늘 린 민 중 의 해 방 을 위 해 나

Dm B^b F C⁷ F A

가 나- 가 도 청을 향 해
가 나- 가 목 숨을 걸 고

Dm A A⁷ Dm

출 정가 를 힘 차 게 힘 차게부 르 세

광주출정가(정세현2집)

- 전라남도 화순에서 활동하던 정세현(본명 문성인, 93년 출가하여 '범능 스님')은 1982년부터 기독교청년회 광주연합회의 행사에 초청받아 광주에서 노래하기 시작하였다. 1984년에 기독교청년회
- 기장청년회 전남연합회 학원선교분과장으로 활동하던 최은기는 자신의 단체에 필요한 투쟁가를 만들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출정가」 가사를 써서 정세현에게 넘겨 주었다.
- 광주의 청년학생문화운동가들과 수년 간 노래 운동을 해 오던 정세현은 민중문화연구회에 노래를 넘겼고 1985년 3월에 발간된 『광주문화』에 「승리의 노래」로 실렸다. 85년 광주의 민중문화연구회는 음반 <광주여 오월이여>를 제작했다. 5·18 민중항쟁 모든 과정을 노래와 다큐멘터리 낭송 등으로 엮었다. 여기에 실린 정세현의 곡 '광주출정가'는 80년대 대학가와 거리 시위에서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하나였다. 제목이 '광주출정가'로 잘못 알려졌다. 정벌하러 간다는 출정은 제국주의적이지만, 출전은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나가는 의미라고 한다.